

'맛·영양 만점'



완도 전복 치킨, 국회에 뒀다

국회 수산물 직거래 장터 시식회...마을기업 '복닭복닭' 개발 신우철 군수 "수산물 활용 메뉴 개발 추진...어가 소득 증대"

완도군이 국회 소통관 앞에서 전복으로 만든 치킨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수산물 홍보를 위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전복 치킨 시식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완도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완석 환경부장관, 이철 전남도의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완도군 향우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손명수, 허중식, 안호영, 서삼석, 정진욱, 김동아, 박군택 등 30여명의 국회의원이 바쁜 일정에 행사장을 찾았다. '전복 치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 친화 기업



완도군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수산물 홍보를 위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전복 치킨 시식회'로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제공>

공모 사업에 선정, 완도 청산도에 조성한 마을 기업 '복닭복닭'에서 개발한 메뉴다. '전복 치킨'은 완도의 대표 수산물이

자 최고의 보양 식재료로 꼽히는 전복과 국민 간식인 치킨이 만나 앞으로 '새로운 인기 간식, 든든한 한 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닭복닭'은 15일 청산도의 본점 개업을 시작으로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해 어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복 양식 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장을 찾은 여의도의 한 직장인은 "전복과 치킨의 조합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전복의 담백함과 치킨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졌다"며 "흔하지 않은 메뉴라 또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완도군 소제(썬완도), 천지가 전복이 참여했으며, 순살 전복과 전복 어묵, 전복 장아찌, 김, 미역 등 해조류 가공품 등을 선보였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밥상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수산물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시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 주민 반발 지속

태양광설치반대대성명서 발표...내달 8일까지 집회 주민 의견 배제·환경 파괴 지적...'전면 백지화' 요구

목포시가 추진 중인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양읍산 태양광설치반대위원회는 13일 "목포시청 정문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읍산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양읍산 태양광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양읍산을 파괴하는 태양광 결사반대', '업자만 배 불리는 태양광 결사반대', '업자 이익 대변인 수도과는 자폭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성명서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고통이 예상된다는 점 ▲자연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우려 ▲민

간 업자에게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공작을 중단할 것을 담았다. 위원회는 "목포시가 양읍산 태양광 민간투자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그냥 추진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고수

하고 있다"며 "민간업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읍산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남아야 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의 정당성이 없다"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양읍산 태양광설치반대위원회는 수능일인 14일에는 집회를 중단할 예정이지만, 12월8일까지 목포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18만여명 다녀갔다

이달 말까지 국화꽃 전시·야간조명 연장 운영

2024 월출산 국화축제에 관광객 18만 4천여명이 다녀가며 남도 대표 가을 축제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월출산기찬랜드 일대에서 '2024 월출산 국화축제'를 개최했다. '국화의 빛으로 가을을 밝혀라!'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국화 전시와 야경 조명, 음악 콘서트 등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특히 이번 월출산 국화축제는 온라인 포털 검색량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전국 축제 트렌드 지수' 10월 3위에 올라 남도 대표 가을 축제임을 증명했다. 올해 축제에는 레이저와 포그머신을 활용해 환상적인 북극의 밤하늘을 재현하는 '월출산 오로라(AURORA)'가 매일 열려 큰 인기와 찬사를 받았다. 여기에 월출산기찬랜드 물놀이장에 설치된 폭포 일루미네이션 등 오색의

야간 조명이 더해지며 가을밤을 낭만적으로 물들였다. 축제 기간 주무대에서는 '국화 콘서트'가 이어지며 분위기를 고조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열린 춤추는 곰돌이 '랜덤 플레이댄스'는 어린이 관광객들의 흥과 끼를 발산하는 장이었다. 축제를 마친 영암군은 이달 31일까지 3주간 국화꽃 전시와 야간조명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화와 빛이 음악과 어우러져 모든 방문객들이 풍성하게 즐긴 축제였다"며 "동시에 영암군의 생활인구를 늘려 교부세 확보 등 지방재정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무안으로 오게'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

대·소형견 구분 야외 놀이시설 조성...내년부터 무료 운영

무안군은 13일 "무안으로 오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일로읍 오토링 470번지 5천400㎡ 면적에 대형견·소형견을 구분해 야외 놀이시설, 녹지시설을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무안에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잦았는데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기반 마련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체계 및 수목의 원활한 활착 및 잔디 정비 후 내년부터 무료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준공되기까지 기다려 준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주민 모두가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무안군이 대·소형견을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무안으로 오게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천년의 빛 영광게이트볼대회' 성료

12개 시·군 300여명 선수 참여...郡 "스포츠 저변 확대 지속 지원"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티움 보조 경기장에서 2024 천년의 빛 영광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체육회·영광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했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스포티움 보조 경기장에서 2024 천년의 빛 영광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체육회·영광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했다.

전남 12개 시·군 33개 팀 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뒀던 실력을 발휘하며 공정한 경기를 펼쳤다. 대회 방식은 시·군 대항 단체전으로 예선리그전,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결정했다. 승부욕과 열정이 가득했던 경기 결

과 ▲1등 영광군 복지팀 ▲2등 영광군 영광A팀 ▲공동 3등 함평군 함평C팀, 영광군 영광B팀으로 영광군에서 1, 2, 3등을 모두 휩쓸며 전남도 최고의 실력을 과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어르신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승부를 넘어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군, 'K-푸소' 글로벌 상품화 추진한다

목포대 참여 다국어 외국인 접객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체험단 팸투어 경험 나라별 SNS 소개 예정

강진군이 국내 농촌관광모델로 자리매김한 푸소의 글로벌 상품화를 위해 다국어 외국인 접객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립목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 교수진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인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글로벌 K-푸소 매뉴얼 개발,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외국인 접객지원 시스템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외국인 체험단 팸투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푸소 상품의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1차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팸투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체험객을 대상으로 사의제 탐방, 마당극 관람, 김밥 도시락 만들기 체험, 푸소 농가 체험을 기본으로 1차 팸투어에서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즐기, 2차 팸투어는 고려청자박물관 투어와 청자컵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진행된 김

밥 도시락 만들기 체험과 푸소 농가 체험은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큰 호평을 받았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글로벌 K-푸소 팸투어 경험은 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라별 커뮤니티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재혁 목포대 교수는 "강진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대상 상품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영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외국인 체험단 팸투어를 통해 강진푸소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K-푸소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푸소가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외국인 체험단이 강진 팸투어에 참여한 가운데 강진읍 사의제에서 마당극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진군 제공>

해남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확대

전년비 43% ↑ ...대학생 성적우수자 지원도

해남군이 올해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미래인재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해남군교육재단에 따르면 최근 2024년 해남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성적우수, 예체능특기자 등 15개 분야 430명, 3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3% 확대된 금액이다. 특히 해남군은 대학생 성적우수, 지역사회공헌 분야 등 장학금 지원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와 재능을 발굴하고 학업의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해남군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역출신 대학생 중 학기 성적 우수자에 대해 국비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

으며, 지역사회공헌 장학금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재학생 중 도 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처음 도입한 만학도 장학금에는 초등학교 인정을 해남군 문해학교인 꿈보배학교 재학생들이 장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현관 해남교육재단 이사장(해남군수)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